

VOGUE KOREA

보그 한국판
OCT
2009
통권 159호
5,500원

사진가 KT의
세계 소수민족 프로젝트 2
LONG NECK
WOMEN
MEET DIOR

우리 시대 최고의 여배우
장진영을 추억함
MEMORY
OF AN
ACTRESS

PLUS
'베르베르'라는 신과의 대화
명성황후 수애 vs. 로맨틱 가이 정우성
김명민, 죽어야 사는 남자
가요계에 몰려온 소녀들의 쓰나미
2NE1과 빅뱅의 스타일은 뭐가 다를까
에지 있는 요리 '마크로비오틱'

into the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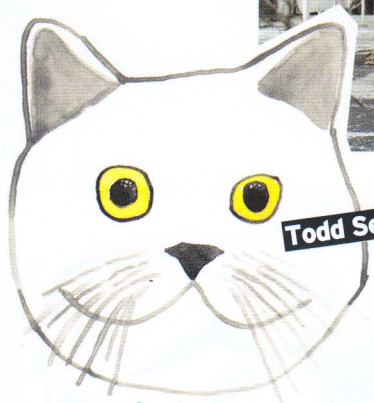
10월의 숲, 낚시터, 갈대밭, 과수원
<보그>와 함께 떠나는 가을 패션여행!

ISSN 1228-1166





투명 인간이 되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토드 셀비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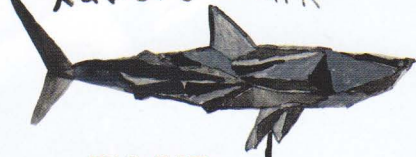


potato

Todd Selby of THESELBY.COM

● TheSelby.com에서는 미국 <보그> 에디터의 집도 훑쳐볼 수 있고, R.E.M.의 마이클 스타이프의 사생활도 엿볼 수 있다. 블로그의 주인, 토드 셀비는 뉴욕, 런던, 파리, 시드니 등 세계 곳곳에서 패션계 중심인물들의 사적인 공간을 촬영한 후, 그 사진들을 인터넷에 공유한다.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그의 사진들과 일러스트레이션(그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한다)이 패션계를 사로잡은 것은 물론이다. 파리의 편집숍 골레프에서 전시를 갖는가 하면, 최근엔 파리 <보그>에 그의 사진들이 실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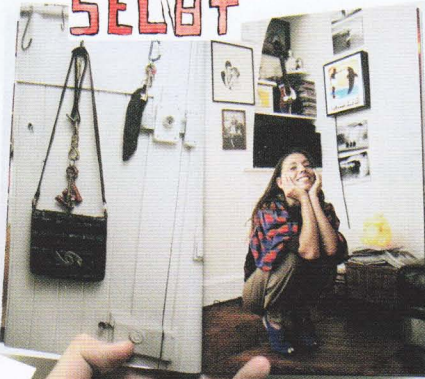
Xavier's Shark



VOGUE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진가로 일했나? **TODD SELBY**(이하 **T.S.**) 원래 8년간 사진가로 활동했고, 한동안 잡지에서 일하기도 했다. 'The Selby'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사람들과 그들의 공간, 그들의 소장품들을 촬영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과의 인터뷰다. 기본적으로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일하는 공간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작업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theselby.com'에 올리는 것이다.

VOGUE 당신에게 촬영을 허락한 사람 중에는 미국 <보그> 패션 뉴스 디렉터인 샬리 싱어도 있고, R.E.M.의 보컬인 마이클 스타이프의 집에서는 애인과의 비밀스러운 장면도 담겨 있다. 그들에게 집을 공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나? **T.S.** 비범이라면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하하! 물론 내 사이트가 유명해지고 난 후에 먼저 내게 자신의 공간을 촬영해주길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되도록 내 친구이거나 친구의

THE SELBY



natalie wood



style SPHERE

블로거 개인의 관심과 재능이 듬뿍 담긴 패션 블로그는 패션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다. 패션 팬들이라면 꼭 즐겨찾기 해줘야 할,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무장한 4명의 패션 블로거와의 인터뷰.



The Selby

is in your place.

친구인 사람들만 촬영하도록 노력한다. 촬영할 인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촬영이나 결과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메일을 통해 내게 촬영을 제안한 사람들을 촬영한 경험도 두 번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당신의 집을 촬영해주길 원한다면, 당신의 집 사진을 내게 보내봐도 좋다. 어쩌면 내가 한국으로 날아가 당신의 집을 촬영할지도 모르는 일인니까!

VOGUE 지금까지 촬영한 사람들의 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을 살짝 밝혀지면? **T.S.** 누가 볼지 모르니, 알려줄 수 없다. 대신 내년 5월에 나오는 사진집에 내가 좋아하는 집들이 모두 실릴 예정이니 책에서 직접 확인하길! <The Selby in Your Space>라는 제목으로 모두 30곳의 공간이 담길 예정이다. 물론 그 중 23곳은 뉴욕, LA, 런던 파리, 멕시코에서 도쿄까지 내가 촬영한 도시들 중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곳들이 될 것이다. 사진집으로선 '아주 저렴한' 35불이라는 것도 말해도 될까?

VOGUE 누군가의 집에서 당신이 특별히 찾아내고 싶은 것은? **T.S.**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개성이다. 그렇기에 그 집에 녹아 있는 개성을 찾으려 한다.

VOGUE 그럼 개성을 찾아내고 싶은 다음 번 사람은? **T.S.** 당연히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가족을 촬영하는 것이 내 희망 0순위!

VOGUE 사진을 제외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한 진행하는 인터뷰를 보는 재미도 쓸쓸하다. 원래 그림을 그리기도 했나? **T.S.** 어릴 때 친구인 제레미 시로타와는 한때 함께 만화책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 추억을 바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고 한다.

VOGUE 그럼 앞으로 패션 디자인에도 도전하는 것 아닌가? **T.S.** 물론! 옷을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다. 난 광적인 패션 팬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놓을 수 있는 소품들도 디자인해보고 싶다.

VOGUE 실제로 옷 디자인에 도전한 적이 있나?

T.S. 얼마전 유니클로와 함께 티셔츠 라인을 디자인했다. 가을에는 나이키와 함께 작업한 프로젝트도 런칭하게 될 것이다.

VOGUE 그 외에 요즘 빠져 있는 일은? **T.S.** 아브람스(Abrams) 출판사에서 나올 내 책을 마무리 짓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 현재 준비 중인 '거대한' 프로젝트들. 한국에도 가고 싶다. 왜냐고? 난 김치를 사랑하니까!

VOGUE 자신의 블로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T.S.** 공식으로 표현하겠다. 흥미로운 사람+창조적인 공간과 무언가 다른 것 = The Selby.



매 시즌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신인 모델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 패션계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Confessions of a casting director'란 흥미로운 제목이 달린 블로그의 주인공 더글라스 퍼렛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캐스팅 디렉터다. 톱 모델들보다는 신인 모델들의 가능성을 즐기는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패션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얼굴들을 일린다. <틴 보그> 홈페이지에서 객원 블로거로 활동할 정도로 모델 팬들에게는 인기 만점인 그가 선택한 이번 시즌의 뉴 페이스들을 보라.

VOGUE 캐스팅 디렉터라는 직업은 평범한 직업이 아닌데, 어떻게 시작했나? **DOUGLAS PERRETT(이하 D.P.)**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의 작품 발표 패션쇼를 위해 모델 에이전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피슨 친구들의 교내 패션쇼를 위한 모델들을 대신 캐스팅했다(당시 친구들 중에는 프로엔자 스쿨러도 있었다).

VOGUE 어린 시절부터 모델들에 관심이 많았는가? **D.P.** 늘 아름다운 외모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하! 하지만 모델이 더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는 동시에 그 사실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이다.

VOGUE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누구인가? **D.P.** 원조 슈퍼 모델! 베르사체와 함께 일했던 모델들은 모두 좋아한다. 당시 베르사체는 늘 최고의 모델들만을 캐스팅했었다.

VOGUE 모델을 캐스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D.P.** 가능성! 신인 모델들은 패션업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그렇기에 그들의 어리숙한 행동 속에서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좋은 피부와 눈빛, 그리고 성격도 도움이 된다.

VOGUE '캐스팅 디렉터의 고백'이라는 블로그의 제목이 재미있다. **D.P.** 2005년 내 블로그에 글만 가득하고 이미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 지겨워서 새로운 블로그를 시작했다. 처음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글은 하나도 없고 모델들의 폴라로이드 사진들처럼 패션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미지들로 가득한 블로그였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당시 너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블로그로 일을 구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

VOGUE 블로그를 운영하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기억을 꼽자면? **D.P.** 하나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COACD는 그야말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은 내 블로그의 이름이 내 회사의 이름이 되었다. 블로그와 내가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합쳐진 것이다. 덕분에 직원들도 두게 되었고, 여전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캐스팅 일도 이어지고 있다.

VOGUE 블로그를 보다 보면, 'Major!' 'Expensive' 등 모델들을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들도 재미 있다. **D.P.** 하! 그런 단어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장난처럼 쓰는 단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지만 'Major'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다!

VOGUE 이제 곧 새로운 시즌이 시작한다. 최근 눈에 띄는 모델들이 있는가? **D.P.** 내가 보내준 사진들 속 모델들을 주목하시길!

VOGUE 그 외에 지금 특별히 진행 중인 작업은? **D.P.** COACD 블로그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9월 10일부터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주소는 www.coacdinc.com/

VOGUE 자신의 블로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D.P.** 서비스.